

## 國內 資產規模 最大企業 韓國電力 12兆5,664億 원

政府投資企業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국내 전체 기업중 資產規模가 가장 큰 회사는 韓國電力이며 지난해에 제일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月13日 관연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창립 27돌을 맞이하는 韓國電力의 資產은 지난해 12月 말 현재 12兆 5,664億 원으로 電氣通信公社의 6兆 1,000億 원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韓電의 지난해의 매출액은 4兆 63億 원으로 4位이나, 순이익은 무려 4,811億 원에 달해 단연 으뜸이며 매출액으로 볼때 1位는 現代綜合商社 5兆 2,000億 원이며 三星物産 4兆 9,000億 원, 大宇 4兆 8,000億 원의 순으로 되어있다.

기업별 순이익 규모를 보면 電氣通信公社가 2,448億 원으로 2位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住宅公社 979億 원, 土地開發公社 813億 원, 浦項製鐵 703億 원, 現代自動車 597億 원, 油公 429億 원의 순이다.

### 제3회 原產, 學會合同年次會議 - 7個國 原子力專門人 참석 -

韓國原子力產業會議와 原子力學會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合同年次會議가 지난 4月 18일부터 20일까지 3日間에 걸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美國, 프랑스, 日本, 스웨덴, 서독, 加拿다 等 7개국 400여명의 原子力 專門人士가 참석한 가운데 셰라톤 위커힐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韓鳳洙 原產會長은 개회사를 통해 原電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技術自立과 安全性 문제는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全世界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번 會議를 통해 國제적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李寬 科學技術處長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 관련하여 政府는 우리나라를 世界 10位圈 내의 技術先進國으로 육성 코자 하며 原子力技術自立이 주요과제라고 강조했다.

未來의 原子力發電 開發戰略을 기초 테마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國內外 원자력 전문가들의 특별강연 4회, 주제발표 21회 등 모두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초청인사로 참석한 카나다原子力公社 제임스 도넬리社長은 世界의 未來 原子爐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原子力이야말로 고갈되어가는 石油와 石炭, 가스의 대량소비에 대처하고 장래의 세계 에너지공급의 安定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日本 原子力研究所 이하라 요시오 소장은 未來의 核에너지 研究開發에 대한 日本의 戰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日本에서의 未來核發電은 高速增殖爐 개발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의 申載仁 기술고문은 韓國의 原子力發電 開發戰略의 再定立이라는 主題發表에서 美TMI事故 이후 근 10년동안 원자력선진국들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접합시킨 改良爐 개발과 근원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原子爐를 개발 추진해 왔으며 2000年代에는 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한국은 앞으로 건설되는 原電은 같은 새로운 기술도입이 필수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 印度, 海上試錐設備 責主 現代重工業에 낙찰

現代重工業(株)는 印度의 國營石油公社가 실시한 海上試錐設備 입찰에서 낙찰되었다고 지난 5月10日에 알려졌다.

이 시추설비는 풀랫홈 3基와 부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로서 공사비 총액 2億 7,400萬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印度政府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데 現代重工業의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歐美의 重工業業體들이 최저 가격낙찰후에도 계속 로비活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億 1,050萬 달러 규모의 풀랫홈 2基와 5,300萬 달러 규모의 1기로 되어있는 이 試錐設備은 印度政府의 허가를 얻는 날로부터 24개월 후 인도 되는 조건이다.

現代重工業은 허가가 나오는대로 곧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現代重工業은 지난해 세계 해상시추설비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수주 호조에 힘입어 42%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展望하고 있다.

## 에너지經濟研究院에서 에너지세미나 開催

에너지經濟研究院(원장 李會晟)은 지난 4월 15일 研究院 대회의실에서 뉴욕선물거래소(NY-MEX)의 Rosemary T. McFadden會長을 초청 원유거래의 가격리스크 관리와 뉴욕선물시장의 기능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學界 및 精油業界 등 石油관련 專門家 60명이 참석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의 심각한 등락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石油輸入來去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原油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重要性이增加되고 있는 원유 선물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에너지시장의 구조변화를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美國 MIT 에너지政策 연구센터 소장인 David O. Wood 박사를 초청하여 “최근 國際에너지 시장의 構造變化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産業体 에너지節約 지원 에너지管理公團에서

올들어 에너지管理公團(이사장 문홍구)은 産業体의 에너지節約 지원을 위한 「에너지管理 診斷事業」 및 이의 「技術指導事業」을 강화,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管理診斷의 경우, 종전의 診斷 위주로부터 심층기술지도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업종별 진단전문요원을 다수 確保,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내실화 해 나간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에너지利用合理化 시범사업」은 작년도 사업결과 에너지節約 효과가 커던 업종별 우수절약기술과 先進技術 등을 적극 발굴, 보급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management公團은 업체당 20억원 한도내의 장기저리융자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 및 세미나실시, 해외 技術研修支援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韓電, 原電技術自立計劃 추진 動資部長官에게 업무보고

韓國電力公社 韓鳳洙 社長은 지난 4月 29日 李鳳瑞 動資部 長官에게 1988年度 業務計劃을 보고하였다.

동자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날 업무계획보고에서 韩鳳洙 사장은 지난해에 韓國電力公社는 史上 최초로 최대전력수요가 1,000萬KW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두차례에 걸쳐 電氣料金을 7.6%나 引下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最善의 奉仕와 創意的 經營으로 외채, 전력 예비율 등의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모하기 위하여 顧客保護委員會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전기공급 규정 가운데 115건의 조항을 고객편의주의로 改善整備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에 한전은 今年 下半期中에 9,125億원의 株式을 5年間 균등 공개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육성하고 原電技術自立計劃의 추진과 전기요금 장기안정화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李鳳瑞 동자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오늘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기업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력사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보고에는 韓電의 전 집행간부가 배석하였으며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金允執 기획본부장이 보고하였다. 韓電은 앞으로 地方分權化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특히 發電所 인근 주민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단위별 전소당 積立基金을 마련하여 지역 협력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에 21億원을 적립하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거리 밝기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도 하겠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고객봉사 수준향상을

## 金礦開發을 적극 추진 大韓礦業振興公社 지원 확대

大韓礦業振興公社(사장 尹承植)는 최근 金의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 있는 금광의 총산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礦振公은 지난 81년부터 과거 金生產 실적이 있는 600여개 광산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성을 조사해 왔는데 전국에서 184개 유망광산을 확인, 오는 90년까지 年間生產量을 4톤 수준으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礦振公이 이처럼 금광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84년부터 재개발지원을 해온 忠北 陰城의 筐極광산이 669kg, 忠南 青陽의 삼광광산이 79kg, 慶南의 統營광산이 77kg을 각각 생산, 작년에 전국 금광에서 모두 1,072kg을 생산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金生產은 日帝時代의 產金政策으로 1939年 10.2톤 남북한 31.17톤 까지 생산했으나 해방후 계속 줄어 62年 3.3톤을 마지막으로 70~80년대에는 年間 生산량이 300~400kg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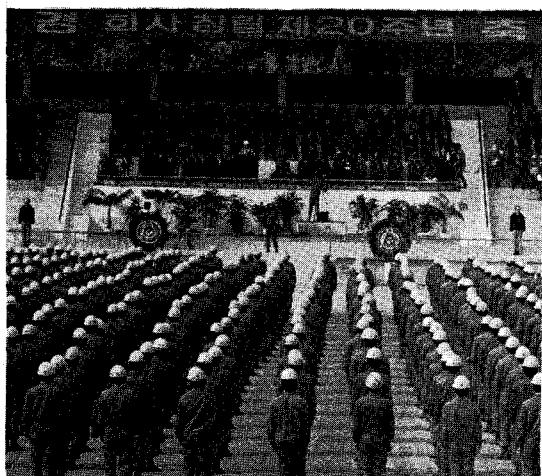
礦振公은 올해 14억원, 90년에는 22억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응자지원도 올해 30억원에서 90년 대에는 5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금 상환 기간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 浦項製鐵株式會社 創立 20周年 記念行事 盛大히 거행

지난 4월 1일 浦項綜合製鐵(株)는 朴泰俊 會長 및 任職員, 關聯業體 등 내외빈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創立 20주년 紀念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서 가장행렬, 고적대페레 이드, 축구경기, 테니스대회 등 各種行事가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浦鐵 20년의 성장사와 地域經濟發展像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철강사진전도開催하였다.

한편, 浦鐵은 國內 金融界, 業界 및 研究機關 등 매출액기준 3백대업체중에서 가장 우수한 評價를 받고 있는 企業으로 韓國信用評價(株)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 重質油分解 설계용역 油公·京仁에너지에서 發注

精油業界의 숙원사업인 重質油 分解시설의 설계용역受注를 놓고 歐美 각국의 일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月 16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油公과 京仁에너지 兩社는 작년 하반기 이후 중질유분

해 및 脱黃技術보유회사들로 부터 기술자료를 견적받아 대상업체를 물색중인데 늦어도 금년上半期안에 확정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美國의 루머스·크레스트, 포스터필러, 배저, 유노칼, 프랑스의 IFP 등 世界 유수의 엔지니어링업체들이 受注活動을 위하여 기술진을 파견 정보수집 등 受注에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油公은 3,600億원의 건설비를 들여 日生產 3萬배럴 규모의 重質油分解시설과 3萬배럴의 탈황시설을 9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京仁에너지도 2,600億원을 투입, 2萬배럴의 탈황시설과 1萬배럴의 분해시설을 같은 기간중 건설할 계획이다.

重質油분해설비는 重油, 벙커C油, 잔사유 등 重質油를 다시 분해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輕質油를 만드는 첨단설비로 大氣污染防止 및 石油製品의 경질화 추세와 함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重質油분해설치는 기획에서 준공까지 4年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重質油분해 및 탈황시설 설치방안을 확정짓고, 89~93年 사이에 총 공사비 1兆 1,680億원을 투입, 1日생산 8萬배럴의 重質油분해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 인도네시아에서 보일러 受注 現代重工業 300萬弗에

現代重工業(회장 鄭夢準)은 지난 4月24日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트 필프 페이퍼社로부터 보일러 1基를 300萬달러에 受注했다.

이 보일러는 시간당 85톤의 스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목재 찌꺼기를 연료로 하는 에너지節約型이다.

現代重工業은 이로써 금년들어 7基의 보일러를 국내외에 납품, 2,800萬달러의 受注高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美洲 및 台灣 등 東南亞 각국에 1億달러 상당의 보일러를 수주할 계획이다.

## 電力수송 高速時代 개막 超高壓 全國送電網 준공

電力を 大量으로 보낼 수 있는 超高壓送電 大環狀網 준공식이 지난 4月21日 慶北榮豐郡 所在, 한국전력공사 新榮州電力所에서 李鳳瑞 동자부장관과 韓鳳洙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李鳳瑞 動資部長官은 有功職員을 表彰한 後 致辭를 통해 超高壓 環狀網이 構成됨으로써 全國 어디에서나 迅速한 電力供給이 可能함에 따라 供給信賴度 向上에 決定的인 기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技術開發과 電力供給施設의 擴充을 위해서는 政府에서 支援을 아끼지 않을 方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全國을 345KV의 超高壓 送電線으로 있는 이 환상망은 1974年 沃川-麗水간 189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한 이후 東海-蔚珍-榮州 구간의 공사를 끝으로 14년만에 완성되었다.

이 초고압송전망은 총연장 4,937km에 6,697基의 대형 철텁으로 이루어졌고, 총 공사비는 모두 6,263億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준공식을 마친 후 李鳳瑞 장관과 韓鳳洙 사장은 전력소 입구에서 金榮珍 송변전처장으로부터 설비현황을 보고 받고 준공기념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배전반을 순시한 후 전력소 앞뜰에 30년 생 구상목을 기념식수하였다.



## 韓國重工業 民營化 추진 自律的인 經營合理化 위해

政府는 韓國重工業株式會社의 자율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年内에 公開入札 방식으로 民營化하기로 지난 5月13日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今年 초 韓重의 民營化방침을 결정하고 現代重工業과 債權, 債務 정산작업에着手하여 이미 實查를 끝냈는데, 올 上半期中에 民營化계획을 확정지를 방침이다.

韓重의 資產은 1兆원대로 추산되어 재벌기업의 引受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現代重工業의 인수가 유력시되고 雙龍·鮮京 등이 인수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企業들이 韓重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5年間 力火發電所 10基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韓重의 인수로 공사수주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韓重 昌原工場 부지가 130萬坪에 달하고 접안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재벌기업들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 變壓器 生產技術 제휴 利川電機 日本 東芝회사와

利川電機(社長 張世昌)는 지난 5月1日 日本의 東芝회사와 3,300~6,600V급 高壓電動機와 變壓器 생산에 관한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관계제품의 품질개선에 나섰다.

利川電機는 그동안 자체기술로 전동기와 변압기 생산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고압전동기의 需要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기기의 品質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東芝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다.

利川電機는 이번 기술제휴로 고압전동기와 변압기의 설계, 生產, 品質檢査 등 모든 과정에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수출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 蔚山 LPG 地下貯藏基地 (株)油公ガス에서 竣工

(株)油公ガス는 85年 12月 創立되어 蔚山에 LPG기지 建設에 着手, 87年 9月 地下貯藏 空洞을 完工하고, 87年 12月에는 쿠웨이트 및 아부다비와 LPG 長期供給 契約을 締結하였으며, 88년 초부터 營業을 開始하였다.

(株)油公ガス의 蔚山 LPG 基地貯藏施設은 총 6백 70억원의 工事費가 投入되었으며, 地下 암반을 굴착한 空洞으로 프로판 14만톤, 부탄 13만톤 等 모두 27만톤의 貯藏 能力を 갖추고 있으며 年間 1백 50만톤 이상의 LPG를 取扱할 수 있는 世界 最大 規模이다.

그 特性을 살펴보면 地下貯藏空洞(CAVERN)은 높이 21m, 폭 17~19m인 여러개의 긴 수평 터널로 되어 있으며, 프로판空洞은 터널의 천정 깊이가 해면부터 119m 아래에 4개의 진터널(총길이 857m)로 구성되며, 부탄空洞은 터널의 천정 깊이가 해면부터 63m 아래에 3개의 진터널(총길이 634m)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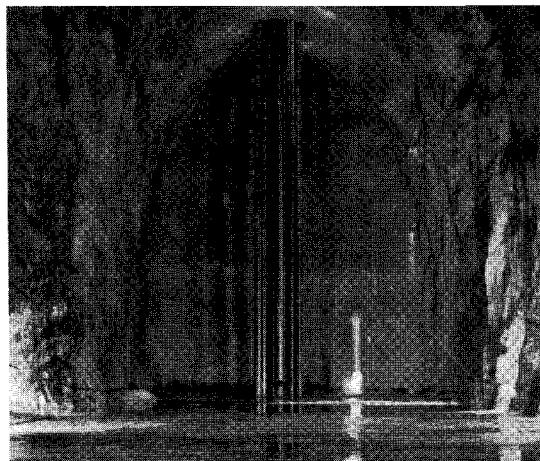
그리고 貯藏原理는 프로판공동, 부탄공동 각각 해수면 119m, 63m 아래 깊이의 암반중에 地下동굴을 굴착하면 주위의 지하수위에 의한 정수압이 空洞(CAVERN) 내의 LPG 압력보다 높게 유지되어 가스가 누설되지 않고, 반대로 지하수가 조금씩 암반중의 틈을 따라 空洞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LPG 地下貯藏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地下貯藏空洞(CAVERN)의 長点으로는 같은 크기의 地下冷凍貯藏 탱크에 비하여 건설비 및 보수유지비가 훨씬 저렴하고, 토지의 소요면적이 적으며, 주위환경 및 안전성, 보안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株)油公ガス는 지난 4月 12일 셰라톤위커힐에서 崔鍾賢 鮮京그룹 會長, 李鳳瑞 動力資源部長官, 李寬 科學技術處長官, Geostock社의 A. Clerc-Renaud 社長 等 關係社 임직원 및 내외 인사 1백4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蔚山 LPG 基地 竣工기념 리셉션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徐孝重 油公ガス 社長은 蔚

山 LPG 基地 竣工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LPG의 안정적 供給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와 產業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李鳳瑞 動資部長官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政策 方向에 맞추어 油公ガス가 제2 LPG 基地를 世界 最大의 規模로 완공, LPG의 저렴한 供給 基盤 擴充과 關聯產業 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世界굴지의 가스회사로 發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필리핀 變電所用役 受注 現代엔지니어링 270萬 달러에

現代엔지니어링(代表 鄭夏五)는 필리핀 電力厅에서 발주한 네그로스파나이 變電所 증설공사用役을 270萬 달러에 수주했다.

지난 5月 3日 現代엔지니어링에 따르면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사업으로 실시된 필리핀 네그로스파나이 變電所 증설공사에 日本, 스위스 등 엔지니어링 業體와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用役受注에 成功한 것이다.

現代엔지니어링은 9개월 동안에 걸쳐 필리핀 네그로스파나이 지역에 138KV와 69KV급 5개 變電所 증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麗川 폴리프로필렌工場 湖南精油에서 준공식 거행

湖南精油는 지난 4月15日 具滋縣 럭키金星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그룹 임직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麗川 폴리프로필렌工場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지난 86年 2月 美國의 유니언카바이드社와 기술계약으로 건설에 착수한 이 공장은 총 482 억원을 투자하여 年間 12萬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폴리프로필렌의 用途는 포장재필름, 어망, 섬유, 電氣, 電子部品,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사용되며 年間 2,600萬달러의 輸入代替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湖南精油는 폴리프로필렌工場 건설로 高附加價值의 石油化學產業에 본격 진출,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세제, 화공약품 등의 기초원료인 파라크실렌, 틀루엔, 벤젠 등을 生產하기 위한 방향족 分離製造工場 等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기초설계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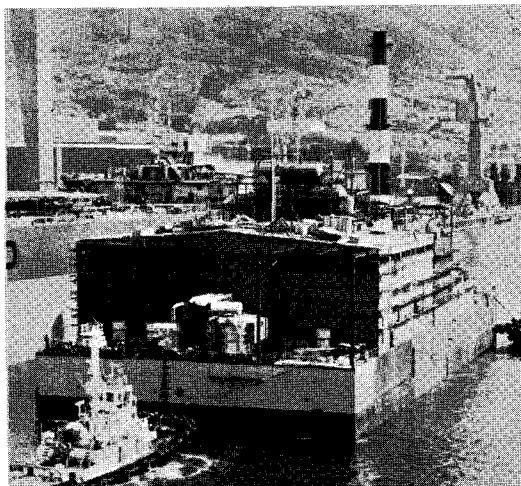
## 태국 카놈發電所 공정 80% 進拓 - 大宇엔지니어링 受注 -

(株)大宇엔지니어링에서는 '86. 12월 태국 電力廳에서 발주한 카놈發電所(75MW급 Barge Mounted Type)建設工事を 턴-키 베이스로 수주하여 현재 80%의 工程진척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금년 8월 태국 現地로 運送될 예정인 카놈發電所 바지선의 製作 및 터빈 제네레이터, 보일러 등發電設備의 설치공사가 육포, 大宇造船에서 80% 공정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태국의 카놈 현지에서도 본 발전소 바지선이 현지에 도착하여 안착할 수 있는 基礎工事 및 냉각수 취, 배수施設, 燃料供給施設 등 육상공사가 同社의 施工으

로 약 8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바지선에 發電所를 建設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현지에 運送하는 모듈공법으로 육포에서 카놈강의 하구까지는 거대한 海上運送用 船舶위에 발전소 바지를 싣고가서 강하구에 내려 놓은 후 예인선이 끌고가 現場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 제 6 차 高溫超電導體 워크샵 개최 電氣關聯科學者, 技術者 參석

韓國電氣研究所(소장 安宇熙)는 지난 4월 8일 동연구소 강당에서 국내의 電氣關聯 科學者 및 技術者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6 차 高溫超電導體 워크샵을 개최했다.

고온초전도체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워크샵은 電氣材料研究部가 중심이 되어 電氣材料의 첨단기술분야인 高溫超電導體의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技術開發 方向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는 동연구소의 電氣材料 관련 과학자와 연구원을 비롯, 연구소와 학계의 저명한 과학자 400여명이 참가, 高溫超電導體 선재제작 및 특성조사연구 논문 등 최신 연구발표논문 16편이 토의되었다.

## 光陽製鐵所 1 고로 첫물생산 年間生産 세계新記録樹立

광양제철소 1 고로가 87년 4월 24일 화입한지 357일 만인 지난 4월 15일 연간設備能力(설계치)인 284만톤의 첫물 生產記錄을 달성하였다. 이는 광양 1 고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世界에서 가장 빠른 浦項 4 고로의 377일보다 20일이나 빨리 1년도 채 안되어 연간 生產量에 도달했다. 특히, 1 고로는 조업개시 23일 만인 87년 5월 17일 正常操業度 달성이라는 세계기록을 수립한 이래 일일평균 출선량 8,530톤, 출선비 2.24T/D/M<sup>3</sup>을 기록하여 정상조업도 지표를 훨씬 능가해 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操業은 최신에 設備라는 이점외에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미분탄취입, 입도별장입, 용선주상탈규 등 각종 新技術의 成功的인 開發에 힘입어 고로生産性을 고도로 향상시킨 結果이다.

## 經濟運轉實習車輛 운전교육 에너지節約에 成果 期待

에너지管理公團(이사장 문홍구)은 經濟運轉 實習用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실기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 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에너지節約技法과 安全運行을 익히는 實習교육용으로, 선진외국의 경우 이같은 차량의 活用으로 큰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에는 탑재컴퓨터(전자식 타코미터), 분석기, 프린터기, 순간연료소비측정기, 속도경보기 등이 부착되어 있어 運行中에 나타나는 운행상태와 운전방법이 기록 분석되어 에너지節約 운전기법과 安全運行의 자료로 활용된다.

일차적으로 운수업체 운전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료과소모운전자와 優秀 운전자를 선정, 試驗運轉을 실시할 예정이다.

## 「메탄을 燃料엔진의 윤활」講演 油公·韓國自動車工學會 주최

油公 윤활유부는 사단법인 韓國自動車工學會 주최로 4월 23일 시내 자동차회관에서 개최된 '88년도 定期 學術講演會에서 「메탄을 연료엔진의 윤활」이라는 주제발표(발표자: 이종명)를 하였다.

自動車業界는 메탄을 燃料로 하는 신형엔진을 研究開發중인데, 이번 油公의 주제발표는 이 엔진개발과 관련, 業界에서 필요로 하는 윤활부분의 지식 및 기술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學術講演會에 참석한 자동차사와 관련업체 등 會員社의 관계자 80여명은 油公의 주제발표 내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보다 상세한 内容의 세미나를 개별 要請해 오기도 했다.

## 靈光原子力 3, 4 호기用 主機器 素材 國內生產 개시

全南 灵光에 建設될 예정인 灵光原子力 3, 4 호기 主機器의 주계약자인 韓國重工業(株)은 핵증기 공급계약(NSSS)의 핵심기기인 蒸氣發生器의 제작을 위하여 87년 12월 2일부터 소재주단 작업을 개시하였다.

특히 韓國重工業은 昌原工場에서 보유하고 있는 13,000톤 용량의 단조시설을 이용하여 蒸氣發生器 본체의 소재를 ASME SA 508 재질 요건에 따라 Ring-Forging 공법으로 생산중에 있다. 美國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후판(Plate)을 굽힘가공한후 鎔接作業을 통하여 蒸氣發生器 본체를 생산하고 있다.

Ring-Forging 공법은 주단작업만으로 본체 소재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鎔接作業이 필요없게 되며, 용접부위가 없음으로 인하여 機器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國重工業은 원자로 용기도 Ring-Forging 공법으로 作業할 예정으로 있다.

## 韓國에너지研究會 제 6 차 討論會 - 李鳳瑞動資部長官 參席 -

韓國에너지研究會(會長 崔東奎)는 지난 6日 1日 서울파레스호텔에서 제 6 차 討論會를 가졌다. 本 討論會는 研究會 發족 1周年을 맞이하여 李鳳瑞 動資部長官이 特別招請되었으며 會員뿐 아니라 動資部 金泰坤, 金世鍾 兩局長과 에너지 關聯機關의 에너지專門家 等 約 50名이 參席하여 崔基鍊博士(亞洲大教授)가 發表한 “代替 에너지 開發에 관한 戰略 - 石油市場 變動과 市場自律化를 감안한 -”이란 主題를 놓고 長時間에 걸쳐 진지한 討論이 있었다. 崔東奎會長은 開會人事에서 에너지經濟 및 政策에 대한 專門人们的 自生的인 모임으로 發足된 研究會가 一年 동안에 長足의 發展을 거듭하여 이번 6차討論會에서는 李長官을 모시고 또한 政府, 企業體 및 研究機關의 來賓까지招請하여 같이 共同의 關心事를 討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이어서 李鳳瑞長官은 87年度에 代替에너지開發促進法을 制定하고 10억원의 基金을 造成하였으니 學界가 主動이 되어 研究機關과 같이 產業連繫하여 分野別로 研究開發에 힘써 商業化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致辭를 通하여 強調하였다. 討論에서는 特히 KAIST, 油公, 가스會社 代表들이 市場自律化에 관하여 力說하였으며 始終 열띤 討論으로 盛況裡에 會議를 마쳤다.

## 電氣·電子工學學術大會 開催 慶熙大 水原캠퍼스에서

大韓電氣學會와 大韓電子工學會는 합동으로 88년도 學術大會를 7月 1日 ~ 2日 양일간에 걸쳐 電氣·電子學術大會를 慶熙大學校 水原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에 앞서 大韓電氣學會와 大韓電子工學會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5月 16日까지 모집하여 발표작을 확정지었으며 사계 專門家들의 많은 參加를 바라고 있다.

## WEC-IEC 名譽議長 Cisier氏 訪韓 韓國電力事業 發展에 기여 다짐

WEC-IEC 名譽議長이며 OAAI(Overseas Advisory Associates)會長인 Walker L. Cisler氏가 지난 4月 11日 韓國을 방문 韓國電力公社 韓鳳洙 社長을 예방하였다.

Marshall Plan의 전력부문 담당자로 6.25 以後 發電艦 도입 등 우리나라 電力 設備 복구에 지대한 공로를 한 바 있는 Cisler氏는 韓國의 電力 및 原子力에 관한 政策 및 長期 計劃에 관해 어떤 形태로든 韓國에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1988년도 石油事業基金 動資部에서 7,913億원 造成

정부는 올해에 모두 7,913億원의 石油事業基金을 조성 6,182億원을 石油備蓄, LNG 배관망 건설, 油田開發, 에너지관련 사업지원에 쓰고 나머지 1,731 억원은 국내 油價調節用 자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基金運用內容을 보면 石油비축사업에 1,114億원을 지원 石油비축량을 지난해 말의 2,940萬배럴에서 금년말까지 3,600萬배럴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같은 비축량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의 하루 소비량을 60萬배럴로 예상할 때 현재의 40日分에서 60日分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國內의 油田開發事業에는 758억원을 투입, 지난해 가스매장량이 확인된 제 6 광구에 3개광구를 시추하고 海外유망油田 4개소의 개발참여와 海外油田 2개광구의 매입을 추진할 計劃이다.

또 에너지 이용 合理化事業에 1,264億원, 代替에너지 開發 보급사업에 736億원, 도시가스事業에 896億원 등을 지원하고 石炭需給 안정을 위한 저탄사업과 유망 石炭礦 개발에 433億원을 투입키로 했다.

## 美 UPI社 철강기술자 浦項製鐵에서 연수교육

美國內 현지합작 법인인 UPI社의 철강기술자 73명이 지난 4月11日부터 浦項製鐵에서 기술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浦項製鐵은 4月23일까지 1차로 냉연공장의 냉간압연분야에 36명을 교육시켰고, 4月25일부터 5月7일까지 2차로 연속소둔분야에 대해 37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浦鐵은 지난해도 10月에 UPI기술자 56명을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외에도 75년과 78에는 中國鐵鋼公社 전설 및 조업초기에 운전 및 정비요원들을 장기간 연수교육을 시켜 한국의 제강, 제철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海外에 선양하였다.

## 東京에서 제1차 調整役회의 韓國電氣研究所에서 참석

韓國電氣研究所는 5월17일부터 19일까지 日本 東京에서 電力中央研究所(CRIEPI)와 제1차 조정역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電力中央研究所 측 조정역인 Dr. Sakurai를 포함한 3~4명의 실무자와 우리측 조정역인 최철 研究企劃部長, 김장한 研究管理課長, 오태규 전력계통연구실장이 참가, 技術情報交換, 研究員교류, 共同研究課題選定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이번 제1차 조정역회의에서는 특히 兩機關間의 共同研究課題 추진을 위한 方案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질적인 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협의된 공동연구과제는 “電力系統 安定度 解析을 위한 Exciter/AVR 및 Turbine/Governor Parameter Identification에 관한 연구”이다.

韓國電氣研究所는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와 지난 78年 9月부터 활발하게 技術情報交換, 人員交流등을 해 왔으며 지난 87年 5月 兩機關의 조정역이 모여 연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 石炭產業 合理化政策 討論會 에너지經濟研究院에서 主催

에너지經濟研究院은 연탄가격을 대도시부터 점차 自律화하는 것이 資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에너지經濟研究院은 이날 大韓商議에서 열린 石炭產業 合理化를 위한 政策討論會에서 현재의 연탄 및 무연탄가격은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직접적인 統制를 받고있기 때문에 企業間의 공정한 競爭体制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연탄가격은 경쟁이 가능한 대도시부터 自律화를 실시하고 무연탄가격은 炭質別로 가격을 自律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研究院은 또 현재 전국의 361개 炭礦중 67.6%인 244개의 非經濟性 탄광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탄광이 정비될 경우 生產성이 32% 향상돼 石炭產業이 合理化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정비대상 炭礦의 현재 石炭生產量은 연간 7 배 21만톤이며, 종업원은 25,800명이다.

## (株) 油 公 전화번호 및 通話方式 변경

油公은 보다 신속,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내선직접 호출방식인 DID 시스템을導入, 5월 15일 0시를 기해 이에의한 통화방식을 施行하고 있다.

외부에서 油公과 통화할 경우에는 국번과 각任職員別로 정해진 構內電話番號를 돌리면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통화방식의 變更과 함께 국번과 구내전화번호도 아래와 같이 변경, 施行되고 있다.

- 통화방식 : 국번+구내번호
- 전화번호 : 788-0000 (임직원별 구내번호 : 5000~7999)
- 비고 : 안내 788-5114



## 動力資源部 人事移動

政府는 지난 4월 5일附로 动力資源部 企劃管理室長에 尹秀吉 資源開發局長을 資源政策室長에는 張錫靖 鑛務局長을 각각 任命發令했다.

그리고 石油調整官에는 李東圭 電力局長, 資源開發局長에는 金泰坤 石油調整官, 鑛務局長에는 池桂植 감사관, 電力局長에는 金世鍾 原子力發電課長, 監查官에는 金台典 鑛業政策課長이 任命되었다.

## 中小企業銀行 理事長에 崔昌洛 前動資部長官 임명

정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中小企業銀行 理事長에 崔昌洛 前動資部長官을 임명 발령했다. 崔前長官은 재임중 에너지안정공급에 정책목표를 두고 주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WEC-IEC 서울大會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 韓國電力公社 監事 金學文씨 任命

지난 3月末로 任期가 滿了된 韓國電力公社의 朴春暇監事 후임으로 金學文 前 政府廳舍 管理所長이 4월 16일자로 任命되었다.

金學文監事는 陸士 11期 出身으로 韓美 1軍團 工兵參謀를 거쳐 陸軍 제5工兵여단장을 역임하고 1982년 轉役하였으며 그間 政府廳舍 管理所長으로 在職하였다.

## 電力그룹 人事

韓國電力公社에서는 지난 4월 1일자로 管理本部長에 文英逸 仁川支社長을, 調達本部長에 李

康延 内資處長을, 販賣事業團長에는 文鳳模 管理本部長을 각각 任命하였다.

韓國電力技術(株)에서는 지난 4月末로 任期가 滿了된 李教瞻 副社長 후임에 金基昌 前韓國電力公社 調達本部長을 任命하였으며, 李教瞻 副社長은 韓技 社長 相談役으로 任命되었다.

韓國電力補修(株)에서는 金秉喆 副社長이 首都電氣工業高等學校 校長으로 轉任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鄭台鳳 前韓國電力公社 판매사업단장이 就任하였다.

## 大韓石炭公社 社長에 安弼瀬씨 理事長에는 鄭寬溶씨 임명

정부는 지난 5月 1日자로 大韓石炭公社 社長에 安弼瀬 前韓國青少年聯盟 總裁를, 理事長에는 鄭寬溶 前內務部長官을 각각 任命했다.

前任 鄭元民 社長과 高光道 理事長은 4月 30日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特히 鄭元民社長은 在任中 韓國에너지協議會 밭족당시부터 副會長으로 選任되어 協議會 발전과 87年度 WEC - IEC 서울會議에 크게 공헌하였다.

安弼瀬 社長은 陸士 12期 出身으로 서울大行政大學院을 修了한 바 있으며 軍在職時에는 第1軍司令官, 保安司令官을 歷任하고 大將으로 豫編하였다.

## 韓國科學技術院長에 全學濟 교수 선임

韓國科學技術院(KAIST)는 지난 5月 2日 理事會를 열고 제 5대 院長에 全學濟 과학기술 원 교수를 선임하였다.

李正五 前院長은 그동안 겸임해 온 韓國科學技術大學長만을 맡게 되었다.

全院長은 서울大 化學科를 졸업하고 西獨 뮌헨大에서 物理化學 博士학위를 취득, 84년 國立科學館長을 거쳐 科技處長官을 歷任하였고 장관退任後에는 과학기술원 교수로 在職하였다.

鄭根謨 博士  
IAEA 理事에 被選

當協議會 技術諮詢委員會 議長인 鄭根謨 박사(亞洲大 碩座 교수)는 최근 國際原子力機構 (IAEA)의 理事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鄭박사는 IAEA의 政策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原子力 發展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役割을 수행하게 되었다.

韓國重工業株式會社 社長에  
李匡根 부사장 選任

韓國重工業株式會社는 지난 5月14日 上오定期株主總會를 열고 安秉華 前社長이 商工部長官으로 任命됨에 따라 그간 공석중이던 社長에 李匡根부사장을 代表理事 社長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5月14日 임기가 끝난 宋鉉湘 전무와 康基壽 상무는 연임되었다.

韓國가스安全公社  
理事長에 崔震碩씨 任命

정부는 지난 4月 12日 字로 임기가 만료된 金元甲 한국가스안전공사 理事長 후임에 崔震碩 動資部 前 資源政策室長을 임명했다.

韓國가스公社 人事

韓國가스公社에서는 지난 4月 1日 자로 副社長에 鮑于賢範 기획본부장을 기용 발령했다. 鮑于賢範 副社長은 그간 韓國에너지協議會의 個人會員으로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밖에 기획본부장에는 金正換 기획부장이, 기획부장에는 林炳夏 공보실장이, 공보실장에는 李榮載 조사부 경영분석과장이 각각 임명 발령 되었다.

勳

章

韓·페루 에너지資源協力  
李鳳瑞動資部長官에 功勞 勳章

李鳳瑞 動資部長官은 지난 5月 27日 駐韓 페루 대사관에서 韓·페루 양국간의 우의증진과 에너지 광물자원의 開發 및 교역협력증진의 공로를 인정 평가받아 페루政府가 수여하는 特別 功勞勳章을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와 페루와의 광물자원의 교역 증진과 공동 개발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兩國合同會議가 5月 24日 동력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린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페루國과 에너지 자원개발 교역 등 協力を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朴肯植 前과기처장관  
벨기에 대십자훈장 받아

朴肯植 前과기처장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駐韓 벨기에 대사관에서 벨기에 레오폴드 2 세국왕의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